

# 중산층의 여가활동 특성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바탕으로

The Study on Leisure Activities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 Analysis of Leisure Satisfaction Between Happiness Level in Middle Classes.  
: Based on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강 사 박민정\*

Dep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Children, Daejeon University,  
Lecturer Bark Min jeng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연구 방향 | V. 연구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 방향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the factors that affect happiness levels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of middle-class and to find way to incorporate them into policy. In this study, a status analysis on leisure life and One-Way ANOVA conduct a study on leisure resource and income levels that affect the happiness level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To recap briefly, to reduce the social and cultural polarization caused by economic disparity and to promote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is possible quantitative-qualitative growth and maturation of middle class.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increasing in leisure time and leisure costs that consumed in real leisure life. In other words,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s in the middle class has see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ending on whether and how much

\* 주저자 : 박민정(park6981@hanmail.net)

to spend on leisure time and cost, rather than differences of th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More particularly, analysis results seem to hoping of the extra leisure costs about 50,000 won per person and increasing the leisure time on weekdays and long weekend holiday.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redefine the middle class that meets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and it should reflect government policy. Ultimately, The state of the socio-economic-welfare policies will be further expanded in the direction for the middle class, thinking of themselves as middle class and leading national consciousness.

Key Words : 중산층의 여가생활(leisure activity of middle classes), 여가자원(leisure resource), 여가생활만족(leisure life satisfaction), 행복수준(happiness level)

## I. 문제제기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polarization)'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대두하여,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교육-주거-소비-의식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소득,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불안정한 소득과 차별적 저임금을 양산하여 폭넓은 중산층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소득상위 1%(2012년 기준)의 연 소득은 3억137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전체 근로소득자 소득 순위 중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자연 1660만원)의 19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종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평균금액은 2007년 165억 원에서 2012년 238억8000만 원으로 44.8%나 증가했다. 차상위 900명의 소득 증가율(24.4%)과 상위 10만 명의 증가율(34.9%)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차이(빈곤갭)<sup>1)</sup>'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였다(김상조, 2014).

하지만 빈곤갭을 메워줄 수 있는 국가의 사회복지 공공지출 수준은 GDP의 9.3%로 OECD 32개국 멕시코(7.4%)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OECD 평균치인 21.8%의 절반도 안 되고 프랑스(32.5%)나 덴마크(30.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OECD, 2014). 즉, 한국은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러한 차이를 줄여줄 여력은 부족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전통적 척도인 지니계수 역시 0.31로 OECD 평균치와 같지만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국제청의 소득세 정산 자료에 근거해 다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0.371로 치솟아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5위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

1)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로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39%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과 한국은 중국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빠르게 빈부격차가 진행된 나라로 조사됐다(동아일보, 2014. 09. 03 참고). 이처럼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IMF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또 다른 명칭이 ‘중산층 붕괴’라는 점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가장 논쟁적이면서 중요한 이론적 논제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은 이 사회계층의 일 부로써 국민경제 및 사회의 핵심계층으로 소비의 주축, 사회안정의 근간, 국민생활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오혁제, 2009). 무엇보다 그 사회에 중간쯤에 위치하는 집단으로 소득 및 소유재산 정도를 포함한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및 직업의 위세를 포함한 사회적 측면의 요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화적인 양극화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 종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사회의 여가는 대중들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되었고,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치진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욕구로 인해 여가문화는 급속히 발전 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가현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여가는 시대와 학자,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며, 대중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김승현, 2013). 이처럼 여가생활은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표현이고,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등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여가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한된 시간적-경제적 자원을 여가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족자원경영학에서도 주요한 여가이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자원경영학에서도 크게 가족여가-생애발달주기-젠더를 중심으로 여가자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여가자원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 및 확대됨에 따라 여가의 양적 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에서도 본격적으로 여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조택구, 최진이, 2008 재인용). 또한 오늘날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여가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커다란 물결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실한 여가정책 설계가 시급하다(조민구,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정책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산층의 여가생활실태분석과 함께 여가생활만족도-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가자원에 대한 분석과 중산층의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제도적으로 중산층의 건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여가생활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무엇보다 21세기는 대중여가시대(mass leisure age)라고(김맹선,이문주, 2005) 불리 울 정도로

어느 때보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여가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대인의 여가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이지혜, 2011). 특히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Campbell(1976)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가영역에 대한 만족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감과 가장 높은 관계를 보이는 단일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 여가영역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행복감을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Iso-Ahola(1980)의 연구에서도 여가와 삶의 질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여가활동의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여가만족을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삶의 질이 높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여가만족이라는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진 삶의 질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가생활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추구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입장에서 여가만족이 삶의 만족, 행복,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여가관련 조건들이 잘 갖추어질 때 궁극적으로 여가만족도와 행복감이 증대되어질 수 있는데(이두희, 박미석, 1998), 여가관련 조건들이라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제한자원이 되는 여가자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이 속하는데, 이러한 여가자원은 개개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여가생활의 경우, 각기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족의 시간적-경제적 자원

을 여가생활에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산층의 여가생활에 대한 분석이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자원경영과 관련된 논문들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는데 이제까지의 여가관련 연구주제를 크게 ‘가족여가’, ‘생애발달주기’, ‘젠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가족여가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에 대한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 기능도 수행한다(문숙재 외, 2005). 특히 가족여가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의 습득을 갖게 하여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일탈화 현상에 대한 좋은 방지책이 될 수 있다(Kelly, 1983). 이처럼 가족여가는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가족원을 위한 교육적 기능,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기능, 사회적 통합 및 여가의 일탈화 방지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원의 유대감을 발달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가족여가는 가족여가가 갖는 부정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신인수, 2005). 이처럼 가족여가생활의 중요성(지영숙, 이태진, 김선미, 전희정, 최보아, 1999; 천혜정, 2004; 유계숙, 김수화, 임정현, 최혜림, 채희화, 2011; 이연숙, 김외숙, 이기영, 조희금, 이승미, 김하늬, 한영선, 2012)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생활에서의 긍정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생활을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고찰하여 각 단계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족생활의 리듬과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을 유형화한 것이다(김정옥, 1996). Lansing과 Kish(1957)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보다 가족생활주기상 어느 단계에 속해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서 여가시간의 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심리적 동기와 사회, 문화적 특성이 여가활동에 직접 작용한다(Rapoport & Rapoport, 2007).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이 갖는 흥미와 관심은 달라지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학령기 자녀가 있는 청장년, 중년의 경우는 경쟁적이고 가족중심의 활동에 주로 참여할 것이며, 자녀의 결혼과 은퇴 등을 겪는 노년기에는 자아통합과 관련된 여가활동이 주가 될 것이다(김중환, 1995). 이러한 연구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도 및 몰입도 그리고 그 유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가족자원경영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생애발달과정에 따른 여가생활에 관한 논문(윤소영, 2006; 이윤정, 2003; 조명희, 2006; 박민정, 윤소영, 2013b; 채현미, 이연숙, 2003)이 비교적 많았는데, 특히 노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성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분석(이정우, 장병욱, 2001, 차승은, 2013; 이정우, 1997; 이정우, 이윤미, 1999; 김외숙, 1997, 장연주, 이기영, 최현자, 2012)은 세부적으로 기혼-미혼으로 나누기도 하고, 도시여성-농촌여성으로 나누어 젠더 및 젠더의 여가계약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여가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여성의 생활에 있어 여가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여가활동을 분류하기가 어려웠지만 현대의 주부들은 자녀수의 감소와 기술발달과 대량생산에 따른 편리한 가정기기의 보급 및 이

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 및 에너지 감소,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여가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이기숙, 1995). 또한 스스로 경제력을 획득하게 된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이라는 선택적 조건을 통하여 남성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아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싱글족인 미혼 독신자들은 기혼자들에 비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혼 독신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기에 그 어느 계층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여가 생활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이우람, 2013).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미혼-기혼보다는 중년기-노년기의 남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중년기-노년기 남성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여가문화의 사회화의 기회 역시 부족하다. 하지만, 헤비거스트(Havighurst, 1957), 헤비거스트와 페이건밤(Havighurst & Feigenbaum, 1959)은 중년기의 적응과 레저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중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자율성, 창조성, 신기함, 위신, 생동감의 심리적 측면을 제공하는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레저 활동은 중년기의 정신건강과 사기(morale)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진명훈, 2007 재인용). 특히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보다 성공적인 중년기-노년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여가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의 중요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남성의 경우, 남성의 여가생활보다는 근로자의 여가생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가시간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로 인해 2005년 이후

에는 여가자원의 증가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박민정, 윤소영, 2013)와 여가만족(박성연, 이기영, 2007)에 대한 연구도 확인 할 수 있는데, 두 연구 모두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의 증가로 여가생활의 변화를 예측했으며, 시간자원의 증가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의 양적이고 질적인 증가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여가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연구는 현재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여가자원연구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가생활증진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증화로서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사회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극화 현상의 또 다른 명칭이 ‘중산층 붕괴’라는 점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양극화현상에 대한 가장 논쟁적이면서 중요한 이론적 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주된 소비계층이자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임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터운 중산층은 양극화 현상의 해소방안은 물론 사회의 안전판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층 전반의 문화적인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중산층에 있어서 직업과 학력과 소득 등의 차이에 따른 여가양식을 살펴보는 것은 한 계급내의 불평등 현상을 보거나, 또는 그들의 성향이나 의식구조를 심층적으로 알 수 있어 유용하다. 이러

한 중산층 연구는 사회계급 또는 계층론적인 면에서도 요구될 뿐 아니라(박광주, 1985), 여가활동이 학력, 소득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가연구에서도 중산층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필요하다(김현수,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경제 및 사회의 핵심계층으로 소비의 주축, 사회 안정의 근간, 국민생활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산층의 여가생활을 실태를 알아보고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자원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지원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II. 연구 방향

#### 1.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이다. 구체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여가생활을 파악하고,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여가활동 참여 실태 및 목적,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변화 및 희망여가활동, 여가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만15세 이상 5,003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20일 ~ 2012년 11월 10일까지이며, 조사 지역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포함)에서 진행되었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경우 ‘2012 국민여가생활조사’라는 원자료로 연구주제에 맞게 분석을 진행할 것이기에 중산층이라는 핵심변수에 대한 정의가 다른 중산층 관련 연구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합한 중산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중산층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본다면 계급적 지위에서는 신·구중간계급에 속해야 하고, 소득 및 자산은 ‘중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수준은 최소한 2년제 대학 교육을 받고, 개인 스스로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귀속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산층 귀속의식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택소유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소득수준, 재산수준의 순이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변수가 중산층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홍두승, 김병조, 2006; 김영태, 2006; 조동기,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중산층’의 의미를 기존의 계층 또는 계급으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홍두승(2005)의

지위집단의 관점을 중심으로 원자료에서 확인가능한 객관적기준 중에서 경제적인 차원으로는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양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최저기준인 중간소득은 OECD 중산층 기준에 부합하는 중위소득 50%~150%미만으로 월 가구소득 200~500만원으로 정의하였다(2012년 기준). 또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2년제 포함)졸업 이상으로 정의하여, 본 논문에서 연구진행을 위한 중산층의 조작적 정의는 월 가구소득 200~500만원이면서 대학(2년제 포함)졸업 이상으로 전체 5003명 중에서 97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 3. 연구방법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여가생활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여가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다음 구체적인 여가자원의 영향력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후분

〈표 1〉 중산층 판별기준

기준	차원		주요변수		최저기준
객관적	경제적	생산-소유관계	직업	명칭	화이트칼라(신중간계급)
				종사상의 지위	소부르주아지(구중간계급)
	소비-경제수준	자산	소득	가구소득	중간소득
			금융-부동산	중간 정도의 자산	
사회문화적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년수)	대학	
			질(학교명칭)	(주관적 판단 필요)	
주관적	귀속의식	문화	계층의 단계구분	‘중산층 문화’	(주관적 판단 필요)
				중 또는 중하	

자료: 홍두승(2005)

석으로는 Scheffe를 이용하였다.

대학교 졸업이 693명(98.8%)이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 15명(1.2%)으로 대부분 대학교 졸업자에 해당된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978명의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437명(44.7%), 여성은 541명(55.3%)이다. 연령대는 20대 112명(11.5%), 30대 456명(46.6%), 40대 297명(30.4%), 50대 이상은 113명(11.5%)으로 구성되며, 30대의 비중이 46.6%로 가장 높다. 혼인여부를 보면, 배우자 있음이 803명(82.1%)로 가장 많았다. 중산층의 기준 중 하나인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대는 225명(23.0%), 300만원대는 417명(42.6%), 400만원대는 336명(34.4%)으로 중산층 소득규모로는 300만원대가 42.6%로 가장 많다. 교육수준으로는

##### 2. 조사대상자의 여가생활실태

본 연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여가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여가자원의 활용실태와 여가활동 1순위, 그리고 휴가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정리하였다.

##### 1) 여가자원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반 여건이 필요한데 이때 직접적인 제반자원이 되는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이 여가자원이라 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사회통계학적 특징	빈도(명)	퍼센트(%)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대	225	23.0
	300만원 대	417	42.6
	400만원 대	336	34.4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693	98.8
	대학원 이상	15	1.2
성별	남성	437	44.7
	여성	541	55.3
연령	20대	112	11.5
	30대	456	46.6
	40대	297	30.4
	50대 이상	113	11.5
혼인여부	미혼	166	17.0
	배우자 있음	803	82.1
	사별	3	.3
	이혼	6	.6
합계		978	100.0



〈표 3-1〉 중산층의 평일-휴일 여가시간

응답문항		실제 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빈도 (%)	빈도 (%)
평일	1시간 미만	2(.2)	0(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36(13.9)	7(0.7)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87(29.3)	82(8.4)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262(26.8)	240(24.5)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149(15.2)	257(26.3)
	5시간 이상	142(14.5)	392(40.1)
휴일	3시간 미만	137(14.0)	12(1.2)
	3시간이상 6시간 미만	520(53.2)	414(42.3)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238(24.3)	415(42.4)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6(6.7)	116(11.9)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1(1.1)	16(1.6)
	15시간 이상	6(0.6)	5(.5)
합계		978(100.0)	978(100.0)

(1) 여가시간

여가시간의 경우, 원자료에서 평일시간과 휴일시간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각 각 하루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역시 평일-휴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희망여가시간을 함께 조사하였다(〈표 3-1〉참고).

평일 여가시간의 경우 2~3시간이 287명(29.3%)로 가장 높았으며, 3~4시간 역시 262명(26.8%)로 높았다. 이에 중산층의 경우 평일 하

루 2~4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휴일 여가시간의 경우, 3~6시간미만이 530명(53.2%)으로 가장 많고, 6~9시간미만 역시 238명(24.3%)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휴일에는 평일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여가활동에 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희망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1시간미만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2명(40.1%)로 가장 많았다. 휴일희망여가

〈표 3-2〉 중산층의 평일-휴일 여가시간에 대한 충분도

2012년 여가시간 충분도	평일		휴일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① 매우 부족했다	63	6.4	37	3.8
② 부족했다	393	40.2	295	30.2
③ 보통이다	274	28.0	302	30.9
④ 충분했다	231	23.6	326	33.3
⑤ 매우 충분했다	17	1.7	18	1.8
합계	978	100.0	978	100.0
평균	2.74		2.99	

시간은 6~9시간미만이 415명(42.3%)이거나,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414명으로 42.3%으로 대부분 3~9시간 사이에 분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휴일의 희망여가시간은 휴일의 실제 여가시간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에서 중산층의 여가시간 충분도를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평균 2.74점으로 '부족했다'는 응답이 393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휴일의 경우 2.99점으로 '충분했다'가 326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요약해보면, 중산층의 여가시간에 대한 충분도는 휴일에 비해 평일의 경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가비용

원자료에서 여가비용에 관련된 문항은 월평균 여가비용과 월평균 희망여가비용 그리고 여가비용의 충분도를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희망여가비용과 월평균 여가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표 3-3> 참고).

먼저 월평균 여가비용을 보면, 5~10만 원 이하가 306명(31.3%)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여가비용의 경우 10~20만 원 이하가 306명(31.3%)로 가

장 많았다. 그리고 실제 월평균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의 희망 여가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았는데, 5만 원 이하의 추가금을 원하는 응답자가 318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비용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97명으로 전체 40.6%였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73명(38.1%)으로 많았으며, 여가비용 충분도의 평균값은 2.75점이었다.

2) 여가활동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과 그 활동에 있어서 동반자와 활동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휴가와 관련해서는 휴가 여부와 휴가 일수, 그리고 휴가기간과 연휴기간동안 실제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1순위 여가활동

여가활동은 총 1~3순위까지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순위 응답에 해당되는 자료만을 분석하였으며, 평소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으로 응답한 항목들 중에서 상위 5위까지 만 <표4-1>

<표 3-3> 중산층의 여가비용 관련사항

여가비용 관련 문항		빈도(명)	퍼센트(%)
희망여가비용과 월평균여가비용의 차이	여가비용 감소	4	.4
	차이없음	228	23.3
	5만원 이하	318	32.5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234	23.9
	10만원 초과	194	19.8
여가비용 충분정도	① 매우 부족했다	28	2.9
	② 부족했다	373	38.1
	③ 보통이다	397	40.6
	④ 충분했다	173	17.7
	⑤ 매우 충분했다	7	.7
평균		2.75	
합계		978	100.0

〈표 4-1〉 중산층의 1순위 여가활동

응답 항목		빈도(명)	퍼센트(%)
1	TV시청	417	42.6
2	인터넷검색/채팅/UCC제작/SNS	60	6.1
3	산책	55	5.6
4	영화보기	46	4.7
5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	42	4.3
누구와 함께	혼자서	536	54.8
	가족(친척포함)	260	26.5
	친구	161	16.4
	직장동료	19	1.9
	기타	2	0.2
활동 빈도	매일 한다	596	60.9
	주기적으로 한다	365	37
	비정기적으로 한다	17	2.1
합계		978	100.0

로 제시하였다.

TV시청이 417명(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채팅/UCC제작/SNN활동으로 60명(6.1%)이 응답했다.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혼자서’가 536명(5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친척포함)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260명(26.5%)로 많았다. 활동빈도는 매일한다는 응답이 596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주기적으로 한다는 응답은 365명(37%)이었으며,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에서부터, 한 달에 한번 등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몇 달에 한번이나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휴가생활 관련

중산층의 휴가관련 사항은 휴가여부와 휴가일수,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휴기간은 공휴일이 이들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추측

(2011.9.10~13), 설날(2012.1.22~24, 법정공휴일(예>광복절(2011.8.13~15)) 등이 2~3일 지속된 휴일을 일컫는다.

중산층의 경우 휴가가 있었다는 응답은 90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2.3%가 2012년 동안 휴가를 보냈다고 응답했으며, 휴가기간으로는 일주일 이하가 694명으로 전체의 71.0%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3년 세계24개국 직장인 8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급휴가의 경우 1년 평균 10일을 쓸 수 있지만, 실제 휴가일은 평균 7일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 18.7일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3-12-11).

휴가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여가생활은 문화유적방문(119명)이나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116명), 온천/해수욕(114명), 국내 캠핑(85명) 등과 같이 야외활동과 관련된 실외여가생활이 중심이었다. 반면, 휴가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연휴기간의 경우에는 영화보기(117명), TV시청(94명)처럼 실내여가생활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중산층의 휴가관련 사항

		응답 항목	빈도(명)	퍼센트(%)
	휴가 여부	작년 한 해 동안 휴가가 있었다.	805	82.3
		작년 한 해 동안 휴가가 없었다.	173	17.7
휴가관련	휴가 일수	1주일 이하	694	71.0
		1주일 초과~2주일 이하	88	9.0
		2주일 초과~3주일 이하	20	2.0
		3주일 초과~4주일 이하	2	.2
		4주일 초과	1	.1
		합계	805	82.3
		시스템 결측값	173	17.7
합계			978	100.0
휴가기간	1	문화유적방문	119	12.2
	2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	116	11.9
	3	온천/해수욕	114	11.7
연휴 기간	1	영화보기	117	12.0
	2	TV시청	94	9.6
	3	쇼핑/외식	87	8.9

3) 여가인식 및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수준

(1) 여가인식 및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인식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여가생활의 목적과 여가생활만족도, 그리고 여가생활 불만족에 대한 원인과 증가된 자유시간의 활용방안으로 선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5-1>과 같다.

여가목적에 있어서는 개인의 즐거움(285명),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한다(197명)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중산층의 여가생활만족도의 평균은 2.60이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다.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시간부족이 212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된 자유시간의 활용방안의 경우, 소득을 벌기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283명)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2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2) 중산층의 행복수준

중산층의 행복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6.81점으로 원자료의 전체 평균 6.6점보다 0.21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에서는 행복수준에 대해서 7점으로 응답한 사람이 258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점 응답(256명)이 뒤를 이었다.

4) 중산층의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1) 중산층의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여가생활과 관련된 변수와 실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줄

〈표 5-1〉 여가생활 전반에 대한 중산층의 인식

응답 항목		빈도(명)	퍼센트(%)
여가 목적	건강을 위해	130	13.3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285	29.1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	197	20.1
	대인 관계·교제를 위해	68	7.0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48	15.1
	자기 계발을 위해	19	1.9
	자기만족을 위해	61	6.2
	시간을 보내기 위해	20	2.0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50	5.1
여가생활만족도 (평균=2.60)	① 매우 불만족한다	24	2.5
	② 불만족한다	365	37.3
	③ 만족한다	565	57.8
	④ 매우 만족한다	24	2.5
여가생활 불만족에 대한 원인	시간이 부족하여	212	21.7
	경제적 부담 때문에	138	14.1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19	1.9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7	.7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6	.6
	이전 경험이 부족해서	5	.5
	기타	2	.2
증가된 자유시간 활용방안	시스템 결측값	589	60.2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것	283	28.9
	여가시간을 증가시킬 것	692	70.8
	기타	3	.3
합계		978	100.0

것이라고 가정한 변수는 앞서 여가자원으로 설명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었으며, 사회공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역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1>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평일평균 여가시간(.188\*\*), 평일 여가시간 만족도(.321\*\*), 휴일평균여가시간(.195\*\*),

휴일여가시간만족도(.296\*\*), 월평균 여가비용(.132\*\*), 여가비용 충분도(.222\*\*),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103\*\*), 휴가기간(.146\*\*), 행복수준(.494\*\*), 최종학력(.088\*\*), 가구소득(0.76\*)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0.01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여가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휴가기간이 길고, 행복수준이 높고, 최종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여가만족도와 행복수준에 대한 여러 변수의 상관관계

	여가생활만족도			행복수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평일평균 여가시간	.188**	0	978	.121**	0	978
평일 여가시간 만족도	.321**	0	978	.225**	0	978
휴일평균 여가시간	.195**	0	978	.074*	0.021	978
휴일여가시간 만족도	.296**	0	978	.164**	0	978
월평균 여가비용	.132**	0	978	.070*	0.029	978
여가비용충분도	.222**	0	978	.149**	0	978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103**	0.001	978	.076*	0.017	978
휴가기간	.146**	0	805	.103**	0.003	805
여가생활만족도	1		978	.494**	0	978
행복 수준	.494**	0	978	1		978
최종 학력	.088**	0.006	978	0.038	0.234	978
가구 소득	.076*	0.018	978	0.028	0.379	978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행복수준에서는 평일평균 여가시간(.121\*\*), 평일여가시간 만족도(.225\*\*), 휴일평균여가시간(.074\*), 휴일여가시간만족도(.164\*\*), 월평균 여가비용(.070\*), 여가비용 충분도(.149\*\*),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076\*), 휴가기간(.103\*\*), 여가생활만족도(.494\*\*)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복수준에 대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여가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휴가기간이 길고,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도 높다. 하지만, 소득수준이나, 최종학력은 행복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가자원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여가자원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대한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를 이용하였으며, 여가자원은 평일-휴일 여가시간으로 이루어진 여가시간과 월평균 여가비용으로 정의하였다.

①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평일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행복수준은 <표 7-1>과 같다.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모두 평일여가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

<표 7-1> 평일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평일 여가시간	M	SD	F	P
여가생활만족도	1시간 미만 <sup>a</sup>	2.00	.000	6.384***	.000
	2시간 미만 <sup>a</sup>	2.43	.605		
	3시간 미만 <sup>a</sup>	2.55	.583		
	4시간 미만 <sup>a</sup>	2.61	.575		
	5시간 미만 <sup>a</sup>	2.71	.549		
	5시간 이상 <sup>a</sup>	2.75	.548		
행복수준	1시간 미만 <sup>a</sup>	5.00	1.414	4.939***	.000
	2시간 미만 <sup>a</sup>	6.40	1.634		
	3시간 미만 <sup>a</sup>	6.65	1.664		
	4시간 미만 <sup>a</sup>	6.91	1.563		
	5시간 미만 <sup>a</sup>	7.03	1.637		
	5시간 이상 <sup>a</sup>	7.16	1.605		

\*\*\* $p < .001$

<표 7-2> 휴일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휴일 여가시간	M	SD	F	P
여가생활만족도	3시간 미만 <sup>a</sup>	2.42	.615	9.557***	.000
	6시간 미만 <sup>a</sup>	2.55	.587		
	9시간 미만 <sup>a</sup>	2.79	.520		
	12시간 미만 <sup>a</sup>	2.70	.495		
	15시간 미만 <sup>a</sup>	2.64	.505		
	15시간 이상 <sup>a</sup>	3.00	.632		
행복수준	3시간 미만 <sup>a</sup>	6.84	1.525	1.788	.113
	6시간 미만 <sup>a</sup>	6.69	1.612		
	9시간 미만 <sup>a</sup>	7.06	1.703		
	12시간 미만 <sup>a</sup>	6.86	1.663		
	15시간 미만 <sup>a</sup>	6.45	2.067		
	15시간 이상 <sup>a</sup>	7.00	1.897		

\*\*\*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휴일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행복수준은 <표 7-2>와 같다. 여가생활만족도는 휴일 여가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7-3〉 월평균 여가비용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월평균 여가비용	M	SD	F	P
여가생활 만족도	5만원 이하 <sup>a</sup>	2.45	.608	8.167***	.000
	10만원 이하 <sup>a</sup>	2.65	.553		
	20만원 이하 <sup>a</sup>	2.58	.584		
	30만원 이하 <sup>a</sup>	2.65	.557		
	30만원 초과 <sup>b</sup>	2.87	.523		
행복수준	5만원 이하 <sup>a</sup>	6.51	1.649	4.131**	.003
	10만원 이하 <sup>b</sup>	7.02	1.563		
	20만원 이하 <sup>b</sup>	6.76	1.676		
	30만원 이하 <sup>b</sup>	6.75	1.559		
	30만원 초과 <sup>b</sup>	7.21	1.761		

\*\*\* $p < .001$ , \*\* $P < .01$

로 나타났으나 ( $p < .001$ ), 행복수준은 휴일 여가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월평균 여가비용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다음은 월평균 여가비용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모두 월평균 여가비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p < .001$ ), 월평균 여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서 여가생활만족도는 30만 원 이하보다 30만 원 초과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반면 행복수준의 경우는 5만 원 이하보다 5만 원 초과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③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자원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중산층 내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여가자원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으며, 사후분석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7-4>와 같다.

중산층 내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라 여가자원의 경우, 평일-휴일 모두 여가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월평균 여가비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였다.

그리고 중산층 내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라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 ( $p < .05$ )를 보였지만, 행복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즉, 중산층 내에서의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자원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월평균 여가비용과 여가생활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V. 연구 요약 및 제언

양극화 현상의 또 다른 명칭이 ‘중산층 붕괴’라는 점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양극화현상에 대한 가장 논쟁적이면서 중요한 이론적 논제라



(표 7-4)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자원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M	SD	F	P
평일 평균 여가시간	200만원~300만원 미만	3.99	1.276	1.376	.253
	300만원~400만원 미만	3.82	1.220		
	400만원~500만원 미만	3.84	1.293		
휴일 평균 여가시간	200만원~300만원미만	2.36	.912	.975	.378
	300만원~400만원 미만	2.26	.842		
	400만원~500만원 미만	2.29	.890		
월평균 여가비용	200만원~300만원 미만	2.64	1.165	2.864*	.049
	300만원~400만원 미만	2.41	1.121		
	400만원~500만원 미만	2.52	1.182		
여가생활 만족도	200만원~300만원 미만	2.52	.635	3.388*	.034
	300만원~400만원 미만	2.62	.564		
	400만원~500만원 미만	2.64	.561		
행복수준	200만원~300만원미만	6.69	1.781	.882	.414
	300만원~400만원 미만	6.87	1.650		
	400만원~500만원 미만	6.83	1.515		

\* $p < .05$

할 수 있다.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주된 소비계층이자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임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삶을 보호·유지·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직업과 학력과 소득 등의 차이에 따른 여가양식을 살펴보는 것은 한 계급내의 불평등 현상을 보거나, 또는 그들의 성향이나 의식구조를 심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지혜, 2011)로서 여가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중산층의 여가생활실태분석과 함께 중산층의 여가만족과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자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SPSS 18.0을 이용하여 중산층의 여가생활실태분석과 함께 조사대상자의 여가

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다음 구체적인 여가자원의 영향력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를 이용하였다. 여가생활만족도·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가자원과 소득 수준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행을 위한 중산층의 조작적 정의는 월 가구소득 200~500만원이면서 대학(2년제 포함)졸업 이상으로 전체 5003명 중에서 97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978명의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비는 여성이 541명(55.3%), 연령대는 30대 456명(46.6%), 혼인여부는 배우자 있음이 803명(82.1%)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대는 417명(42.6%), 교육수준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693명(9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여가자원 이용실태의 경우, 여가시간은 평일 여가시간의 경우 2~3시간이 287명(29.3%)로 가장 높았으며, 휴일 여가시간의 경우, 3~6시간미만이 530명(53.2%)으로 가장 많았다. 희망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은 5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2명(40.1%)로 가장 많았으나, 휴일은 휴일희망여가시간은 6~9시간미만이 415명(42.3%)으로 실제 여가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가시간충분도에서도 나타나는데, 휴일의 경우 '충분했다'가 326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나, 평일의 경우 부족했다'는 응답이 393명(40.2%)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비용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여가비용이 5~10만 원 이하가 306명(31.3%)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여가비용의 경우 10~20만 원 이하가 306명(31.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실제 월평균 여가비용과 희망여가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의 희망여가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았는데, 5만 원 이하의 추가금을 원하는 응답자가 318명(32.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개인의 여가생활 지원금을 고려할 때, 1인당 5만 원 정도의 금액이 그러한 정책의 논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가활동은 평소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으로 TV시청이 417명(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혼자서'가 536명(54.8%), 활동빈도는 매일한다는 응답이 596명(60.9%)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생활에 있어서는 휴가가 있다는 응답이 905명으로 전체의 82.3%였으며, 휴가기간으로는 일주일 이하가 694명으로 전체의 71.0%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3년 세계24개국 직장인 8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급휴가의 경우 1년 평균 10일을 쓸 수 있지만, 실제 휴가일은 평균 7일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 18.7일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3-12-11).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역시 24개국 중에 가장 적었으며, 그 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휴가 일수를 국가 정책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주어진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의 개선도 요구된다.

휴가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여가생활은 문화유적방문(119명)이나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116명), 온천/해수욕(114명), 국내 캠핑(85명) 등과 같이 야외활동과 관련된 실외여가생활이 중심이었다. 반면, 휴가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연휴기간의 경우에는 영화보기(117명), TV시청(94명)처럼 실내여가생활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3일 보다 긴 휴가기간에는 실외 여가생활을 하지만, 그보다 짧은 연휴기간이나 평일-휴일 여가시간에는 실내여가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문화교류 및 국내 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가시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여가목적에 있어서는 개인의 즐거움(285명),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한다(197명)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중산층의 여가생활만족도의 평균은 2.60이었으며,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시간부족이 212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된 자유시간의 활용방안의 경우,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2명으로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자(28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중산층의 행복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6.81점으로 원자료의 전체 평균 6.6점보다 0.21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변수 간 관계성을 확인 하였는데, 여가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여가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휴가기간이 길고, 행복수준이 높고, 최종학력이 높고, 가구소

득이 많을수록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높다. 행복수준에 대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여가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휴가기간이 길고,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도 높다. 하지만, 소득수준이나, 최종학력은 행복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역시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공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범국민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원배치분석(One-way ANOVA)을 통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해 보았는데, 여가생활만족도에는 여가자원(평일여가시간과 휴일여가시간, 월평균 여가비용)과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차이,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행복수준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과 월평균 여가비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휴일여가시간이나, 월평균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여가자원의 분석결과에서도 월평균소득이 여가비용과 여가생활만족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월평균 가구소득보다는 실제 여가생활에서 소비되는 여가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정책적으로 여가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여가활동이 증진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양극화 현상을 줄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실제 여가생활에서 소비되는 여가자원, 즉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중산층의 경우에는 중산층 내에서의 월 평균 가구소득의 차이보다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에 얼마나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가비용의 경우 1인당 5만 원 가량의

추가요금을 희망하고 있으며, 짧은 휴가보다는 야외활동이 가능한 휴가기간의 증가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말보다 주중의 여가시간의 증가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중의 여가시간보장을 위한 자율근무제나, 퇴근시간의 엄수 등의 방안은 기업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중산층 비중은 커지는 반면, 스스로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 뿐 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하기 때문이다(이준협, 2014).

이에 객관적·주관적인 중산층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여가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실현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대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여가비용 지원이나, 평일 하루라도 여가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 의무휴가기간을 정하는 등의 정책으로 개인의 여가비용과 여가시간의 확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여가자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중이나 주말의 여가시간 중에서 짧은 시간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인프라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주중 여가시간에 대한 불만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회공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여가활동의 일환이면서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여가자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크게 가족여가-생애발달주기-젠더를 중심으로 여가자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여가정책의 핵심사안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여가생활증진을 위한 여가정책과 생애발달주기별로 시행되어야 하는 여가정책, 그리고 젠더에 따른 여가계약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가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추후 여가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가자원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여가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은 국민경제 및 사회의 핵심계층으로 소비의 주축이자 사회안정의 근간이며, 국민생활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산층에 속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안도감이 분명 존재하며, 중산층에 속하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여가자원에 대한 양적·질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여,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의 핵심계층으로 국민생활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체감중산층의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경향신문(2013). 한국인 유급휴가 일수 연평균 10일로 최저. 2013. 12. 11. <http://news.donga.com/3/all/20140903/66182517/1#>.
- 2) 김맹선·이문주(2005). 전업주부의 여가형태에 따른 만족도 연구, 소비문화 연구, 8(3), 63-76.
- 3) 김상조 (2014). 국제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서울: 경제개혁연구소
- 4) 김승현 (2013). 여가활동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 및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김영태 (2006). 중산층의 투표행태: 1992년-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2차 포럼, 58-75.
- 6) 김외숙 (1997).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79-88.
- 7) 김정옥 (1996).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 참여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종환 (1995). 생애주기에 따른 대도시 주민의 여가활동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김현수 (1996). 도시 중산층의 여가양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동아일보 (2014).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014. 09. 03.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149451&code=920401&med=khan](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149451&code=920401&med=khan).
- 11) 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 (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 12) 박광주 (1985). 국가론을 통한 한국정치의 패러다임 모색 : 최근의 연구동향과 그 반성, 한국인문사회과학원, 9(2). 30-78.
- 13) 박민정·윤소영 (2013)!. 근로자의 주 40시간

-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자원 이용 및 여가활동 비교분석 : 2012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4), 19-37.
- 14) \_\_\_\_\_ · \_\_\_\_\_ (2013)².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 사회적 관계,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25-138.
  - 15) 박성연 · 이기영 (2007).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 만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137-154.
  - 16) 신인수 (2005). 가족여가 증진을 위한 가족공원 개념화 및 실행방안 연구 :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오혁제 (2009). 중산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유계숙 · 김수화 · 임정현 · 최혜림 · 채희화 (2011). 가족여가활동-가족식사활동 빈도와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99-116.
  - 19) 윤소영 (2006). 노인 여가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1), 187-202.
  - 20) 이기숙 (1995). 중년기 여성의 사회활동. 한국가족학 연구회. 대한 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제2회 심포지엄 자료집.
  - 21) 이두희 · 박미석 (1998).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소비자학회, 9(4), 101-116.
  - 22) 이연숙 · 김외숙 · 이기영 · 조희금 · 이승미 · 김하늬 · 한영선 (2012). 가족공유 여가시간 및 결정요인 : 부부,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99-227.
  - 23) 이우람 (2013). 결혼적령기 전-후 미혼여성들의 여가관태 및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유형의 영향요인: 평균초혼연령을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이윤정 (2003). 노인 여가의 기능과 여가자원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117-130.
  - 25) 이정우 (1997). 중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와 여가행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79-95.
  - 26) 이정우 · 이윤미 (1999).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호 및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1-16.
  - 27) 이정우 · 장병욱 (2001). 도시주부의 정보이용도와 여가자원에 따른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2), 29-44.
  - 28) 이준협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울: 현대경제연구소.
  - 29) 이지혜 (201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여가활성화를 위한 관련 변인 고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0) 이해옥 (2010). 노인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한 네트워크형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1), 17-25.
  - 31) 장연주 · 이기영 · 최현자 (2012).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95-211.
  - 32)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 33) 조명희 (2006). 노년기 여가활동: 노년기 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1), 163-183.
  - 34) 조민구 (2015). 여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 영향요인의 실증적 연구. 한국

-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5) 조택구·최진이 (2008). 각국의 여가정책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여가학회, 9(2), 61-91.
  - 36) 지영숙·이태진·김선미·전희정·최보아 (1999).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1), 83-94.
  - 37) 진명훈 (2007). 중년기 남성의 여가활동유형과 인구사회학적특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8) 차승은 (2013). 중고령 남성의 시간-소득자원 확보와 건강증진행동의 관련성 : 가용이론의 적용,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7(2), 173-194.
  - 39) 채현미·이연숙 (2003). 초등학교 아동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인식: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59-79.
  - 40) 천혜정 (2004). 가족 여가 참여 동기 및 가족 여가활동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8(2), 1-13.
  - 41)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42) 홍두승·김병조 (2006),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2-17.
  - 43) 홍성희 (2006). 노인의 삶과 여가, 그리고 노인여가정책의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집, 2006(1), 221-222.
  - 44) 홍성희·곽인승 (2012). 베이비부머세대의 성공적 노화 :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69-92.
  - 45)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46)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 47) Kelly, J. R.(1983). Leisure identity and interacti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48) Lansing, J. B. & Kish, L.(1957).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5/2-5/9) Oct.
  - 49) OECD (2014). 'remains at historically high levels Insights from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www.oecd.org/els/soc/OECD2014-Social-Expenditure-Update-Nov2014-8pages.pdf>
  - 50) Rapoport, R & R. N(1975). Rapoport.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 51) Shaw, S. M.(1999). Propositive leisure : Examining parental discourse on family activities. In W. Stewart & D. Sandahi(Eds.), Abstracts from the 1999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p.7). Ashburn, VA : National Park and Recreation Association.

- 투 고 일 : 2015년 6월 30일
- 심 사 일 : 2015년 7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24일